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에 관한 연구

- I. 서론
  - II. 마녀사냥의 역사
  - III.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
  - IV.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윤영석

### 초 록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소녀 장르의 자주 등장하는 장르 중 하나이다. 마법소녀 장르의 특징은 주인공 대부분이 나이가 어린 소녀이며, 이 소녀는 일반적인 소녀들과 달리 특수한 능력을 갖춘 캐릭터로 활약하는 점이다. 기존 일본 애니메이션 소비계층은 남성이었으나, 마법소녀 장르가 탄생하면서 여성들도 애니메이션 소비계층이 되었으며, 마법소녀 장르는 쇼조 애니메이션이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의 쇼조 애니메 및 마법소녀 장르로 1966년 <요술공주 세리>이었으며, <요술공주 세리> 방영 이후 큰 흥행을 거두게 된다. <요술공주 세리> 흥행에 따라 새로운 마법소녀 장르 애니메이션들이 TV에서 계속 방영하게 되었으며, 1982년 <요술공주 밍기>와 1992년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이 큰 흥행을 거두게 된다.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의 경우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한 작품으로 2014년 TV 애니메이션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Crystal>로 방영되어 마녀소녀 장르는 일본 애니메이션 시청자로부터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왔으며, 현재도 꾸준히 TV에서 방영되고 있다.

마법소녀 장르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마법소녀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우거나 또는 모험을 떠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그러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등장하는 마법소녀들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모습이 나온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법소녀들은 마녀와 마녀의 사역마를 퇴치하지만, 그 결말은 매우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법소녀들이 퇴치하던 마녀는 본래 마녀가 아니었고, 과거에 활동하던 마법소녀들이었다. 마법소녀들은 과거에 마법소녀였던 마녀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게 된 것이었다. 기존 마법소녀 장르에서 마법소녀와 마녀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는 마법소녀가 마녀로 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마녀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녀로 되어야 했고, 그들에는 마녀사냥을 당해야만 했던 점에서 마녀사냥이 발생하는 이유는 퇴치당해야 할 대상이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존재했어야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녀사냥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에 관한 연구로 통해 마녀의 존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마녀사냥, 운명

## I. 서론

마법소녀 장르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르 중에 하나다. 마법소녀 장르의 특징은 주인공 대부분이 나이가 어린 소녀이며, 이 소녀는 일반적인 소녀들과 달리 특수한 능력을 갖춘 캐릭터로 활약하는 점이다. 기존 일본 애니메이션 소비계층은 남성이었으나, 마법소녀 장르가 탄생하면서 여성들도 애니메이션 소비계층이 되었으며, 마법소녀 장르는 쇼조 애니메(小女アニメ)<sup>1)</sup>가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최초의 쇼조 애니메 및 마법소녀 장르로 <요술공주 세리>(魔法使いサリー, 1966, 도에이)가 TV에서 방영되었다.

<요술공주 세리>는 코야마 미즈테루의 만화를 원작으로 제작된 아동용 애니메이션이다. <요술공주 세리>의 모티브는 미국의 텔레비전 코미디 <내 사랑 지니(Bewitched)>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다. <내 사랑 지니(Bewitched)>에서 인간세계로 찾아온 “귀여운 마녀가 작은 금발 소녀로, 뽀족한 모자가 무릎길이의 흰 양말 및 감각적인 신발과 앙상블을 이루는 모습으로 등장하였다.”<sup>2)</sup> 미국에서 등장하는 귀여운 마녀는 일본에서는 귀여운 마법소녀로 대체되어 일본 TV애니메이션에서 자주 방영하는 마법소녀 장르가 탄생된 것이다.

<요술공주 세리> 흥행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소녀 장르들이 계속 방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후 TV에서 방영한 마법소녀 장르로 <리본의 기사>(ボンの騎士, 1967, 무시 프로덕션), <비밀의 아코짱>(ひみつのアッコちゃん, 1972, 니혼TV) 등이 있었다. 초기 쇼조 애니메 작품들은 대부분 마법소녀 장르였으나, 이후 다른 장르의 작품들도 방영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야구를 소재로 만든 <거인의 별>(巨人の星, 1968, 요미우리TV)이 흥행되

---

1) 쇼조 애니메 : 주로 소녀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 이런 장르의 만화책은 쇼조 망가(小女漫畵)라고 한다. 헬렌 매카시·조너선 클레멘츠, 한창완·이성훈 역, 『저패니메이션 하드코어』, 현실문화연구, 2004, p43

2) 헬렌 매카시·조너선 클레멘츠, 한창완·이성훈 역, 앞의 책, p45

자, 당시 인기가 많았던 여자배구를 소재로 한 <어택 넘버 원> (アタックNo.1, 1969, 후지 TV)이 방영되었고, 테니스시합을 소재로 한 <에이스를 노려라>(エースをねらえ, 1973, 마이니치 TV)가 방영되었다. 스포츠 장르 이외의 쇼쇼 애니메이션으로서 활약한 작품으로 <캔디 캔디>(キャンディ♥キャンディ, 1976, 도에이) 같은 순정물이나 1979년 <베르사이유의 장미>(ベルサイユのばら, 1979, 니혼TV) 같은 시대물 등이 TV에서 방영되었다.

쇼쇼 애니메이션에서 마법소녀 장르를 제외한 많은 작품들이 방영되었지만, 여전히 마법소녀 장르가 쇼쇼 애니메이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요술공주 세리> 종영 이후 마법소녀 장르에서 <요술공주 세리>를 이을 획기적인 작품이 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요술공주 밍키>(魔法のプリンセスミンキーモモ, 1982, TV 도쿄)가 흥행하면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었으며,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美少女戦士セーラームーン, 1992, 도에이)의 경우 일본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였다.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TV 시리즈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 총 5개 시리즈로 편성되었으며, 2014년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Crystal>이란 새로운 시리즈가 방영될 정도로 큰 흥행을 거둔 작품이다. 또한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은 다른 마법소녀 장르처럼 마법소녀가 1명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인원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시리즈가 새롭게 편성될 때마다 작품 내 등장하는 마법소녀들이 추가로 늘어나는 전대물<sup>3)</sup>의 요소를 반영하였다.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의 영향을 받은 마법소녀 장르는 주인공 마법소녀를 1인이 아닌 다수의 인원으로 등장시켰다.

<요술공주 밍키>와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흥행 이후 마법소녀 장르는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대표적인 장르가 되었다. 마법소녀 장르 방영 초기에는 주요 소비계층은 여성이었으나, 위 작품의 흥행으로 소비계층이 남성까지 확장되었다. 일본애니메이션

3) 전대물은 전투를 하는 부대가 등장하는 작품으로, 주인공 한 명이 적과 싸우는 것이 형태가 아니라 집단이 적과 싸우는 형태인 것을 말하며, 특히 특수촬영 시리즈 내지 전투로봇이 나오는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형태다.

등장인물에서 여성은 남성 주인공의 활약을 위한 보조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마법소녀 장르의 주인공은 대부분 소녀인 점에서 여성이었다. 기존 일본애니메이션에서 소외된 여성이 마법소녀 장르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여성 시청자들도 작품 내 등장하는 마법소녀에게 동경심 내지 호감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마법소녀로 등장한 주인공들은 캐릭터 특성상 미소녀이므로 남성 시청자도 마법소녀 장르에 대해 선호하게 되었으며, 마법소녀가 변신하는 장면은 많은 남성 시청자들이 선호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요술공주 밍키>와 같은 경우 밍키가 “변신하는 장면을 실루엣으로 처리하면서 소녀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육체적 변화를 보여준 것이다. 소년들은 이 충격적인 변신장면을 보기 위해 TV로 모여들었다.”<sup>4)</sup> 마법소녀 장르에서 마법소녀의 변신장면에서 보인 관음적 요소는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등을 비롯한 많은 마법소녀 장르에서 등장하게 되었고, 마법소녀의 변신장면은 많은 남성들의 성적환상을 충족시켜주는 매체가 되었다.

이렇듯 마법소녀 장르는 오랫동안 애니메이션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으며, <요술공주 세리>, <요술공주 밍키>,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이외에도 <마법기사 레이어스>(魔法騎士レイアース, 1994, 요미우리 TV), <괴도 세인트 테일>(怪盗 セイント★テール, 1995, TV 아사히), <오! 나의 여신님>(ああっ女神さまっ, 1993, AIC), <카드캡터 사쿠라>(カードキャプターさくら, 1998, NHK), <마법소녀 리리칼 나노하>(魔法少女リリカルなのは, 세븐 아크스, 2004) 등과 같은 작품들도 꾸준히 방영되었다.

마법소녀 장르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녀들은 사회적으로는 학교라는 국가의 제도권에 속해있으며 집에서서는 부모로부터 보호받는다. 마법소녀 물에서 여성 캐릭터들은 여중생 혹은 여고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들은 평범한 학생의 모습으로 위장하고 살아가지만, 주변 인물이나 세계에 위험이 닥

---

4) 박인하,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 연구: 마녀소녀물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호, 1999, p107

치면 극적인 변신을 통해 세계를 구하는 마법전사로 활약한다는 서사적 관습성을 따른다.<sup>5)</sup>” 새로운 마법소녀 장르 작품과 캐릭터가 등장하여도 작품 내 서사적 관습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魔法少女まどか☆マギカ, 2011, 샤프트)는 기존 마법소녀 장르와 다른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되었다. 마법소녀 장르에서 등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이 마법소녀로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고, 마법소녀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반해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주인공 마도카는 마법소녀로 되는 것을 계속 고민하였으며, 마도카가 아닌 다른 마법소녀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서 마법소녀들은 세상을 어지럽히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마녀와 마녀의 사역마(使役魔)를 퇴치하지만, 그 결말은 매우 비참한 상황으로 전개된다.

마법소녀들이 퇴치하던 마녀는 본래 마녀가 아니었고, 과거에 활동하던 마법소녀이었다. 마법소녀들은 과거에 마법소녀였던 마녀에 대해 마녀사냥을 하게 된 것이었다. 기존 마법소녀 장르에서 마법소녀와 마녀는 적대적인 관계였으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는 마법소녀가 마녀가 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마녀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마녀로 되어야 했고, 그녀들은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다.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던 마녀들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만 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마녀사냥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에 관한 연구로 통해 마녀가 가진 존재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

5) 김유나, 정은혜, 「여성주의 문화이론에 따른 애니메이션의 여성 영웅 캐릭터 비교 분석 - 한·미·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6호, 2014. p102



그림 1.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  
(魔法少女まどか☆マギカ, 2011, 샤프트)>

## II. 마녀사냥의 기원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법소녀들이 활동하는 이유는 마녀를 사냥하기 위해서다. "마녀사냥<sup>6)</sup>"은 유럽에서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일어난 사건으로 특히 15세기에서 17세기까지 절정을 이루었다. 마녀사냥의 광기가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당했다. 그녀들은 마녀와 전혀 관계가 없었으나, 그녀들이 죽임을 당할 때 마녀 혹은 마녀와 같은 존재로 매도당하여야 했다. 마녀에 대한 문헌자료에서 초기 가톨릭교회는 하늘을 마녀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A.D 1000년에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1500년대부터 마녀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마녀사냥이 광적으로 유럽을 휩쓸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 교황은 마녀들의 고문을 허용했고, 이 마법광란은 통일된 기독교가 그 종지부를 찍었던 16세기와 17세기의 전쟁과 혁명들이 계속되는 시기에 그 절정에 달했었다.<sup>7)</sup>”

6)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마녀광기witch crazy’라고 혼용해서 부른다. ‘마녀광기’라는 말은 ‘마녀라는 기표를 둘러싼 집단적 광기’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객관하기 위한 용어법이다.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 모음, 2013, p19

7) 마빈 해리스, 박종렬 역, 『문화의 수수께끼』, ㈜도서출판 한길사, 2008, p211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에서는 광적인 마녀사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마녀광이 지닌 실제적인 의미는 마녀광란을 통해 중세 후기 사회의 위기에 대한 책임을 교회와 국가로부터, 인간의 형태를 취한 가상의 괴물들에게 전가시켰다는 데에 있다. 이 괴물들의 환상적인 행위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소외되고 영세화된 대중들은 부패한 성직자들이나 탐욕스러운 귀족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미쳐 날뛰는 악마들을 저주하게 되었다. 교회나 국가는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대중과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존재들이 되었다.<sup>8)</sup>

마녀사냥은 당시 지배계급이던 국가와 교회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불만의 원인은 십자군원정 실패, 흑사병 유행, 빈부격차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었다. 지배계급은 마녀의 존재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녀가 존재해야 했으며, 이런 부조리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본질을 바꾸어버렸다. 그것은 당시 지배계급의 정치적이데올로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택광의 『마녀 프레임』은 지배계급이던 교회권력이 붕괴에 대한 위기감이 마녀사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란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가톨릭교회가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던 ‘암흑시대’에 마녀사냥이 없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그것은 분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톨릭교회가 부여하는 프레임에 맞춰 세계를 인식하고 그 윤리체계에 따라서 편안하게 무탈했다는 말이다. 이 시절에 선악에 대한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교회교리라는 ‘외부’였다. 이 외부는 초월적인 범주에 속했으며 이 범주에 도달하기 위한 삶의 숭고화가 중세에서 가장 존경받고 숭앙되는 일이었다. 이것이 바로 중세 종교관을 지배하던 쾌락원칙이었다. 형태가 없는 권력을 행사했던 가톨릭교회의 약화는 분화과정을 촉진하는 것이기도 했다. 가톨릭교

---

8) 마빈 해리스, 박종렬 역, 앞의 책, p223

회가 가장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던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마녀사냥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 가설을 증명해준다.<sup>9)</sup>

15세기부터 농민들과 도시의 빈민들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반란을 계속 일으켰다. 반란의 원인은 지배계급이 농민에 대한 토지수탈이었으며, 토지를 잃은 농민들을 농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하층 인민계급의 상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악화하고 있으며, 비교적 소규모의 토지소유자와 차지농업가는 일용노동자가 아니면 기껏해야 상용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런 상태로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sup>10)</sup>” 있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 영국에서 왕권강화와 봉건기사단의 몰락과 양모 산업이 발달되면서 농민에 대한 토지수탈이 시작되던 시기였다. 마르크스의 『자본 I』에서 당시 농민에 대한 토지수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민중에 대한 폭력적 수탈과정은 16세기 들어서자 종교개혁과 그 결과인 대규모의 교회령 약탈로 말미암아 새롭고 놀라운 추진력을 얻었다. 종교개혁 시대에 가톨릭교회는 영구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봉건적 소유주였다. 수도원 등에 대한 억압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령의 주민들은 프롤레타리아트로 내몰렸다. 교회령 그 자체는 대부분 국왕의 탐욕스러운 신하들에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혈값에 투기적인 차지농업가 또는 도시 부르주아들에게 팔렸으며, 이들은 이전의 세습 소작인들을 대거 몰아내고 소작인들의 농장을 하나로 합쳤다. 법률에 따라 교회의 십일조 가운데 빈곤한 농민들에게 보장되었던 소유권은 예고도 없이 몰수되었다.<sup>11)</sup>

농민의 토지수탈은 마르크스가 지적한 것처럼 유럽의 자본주의 도래와 발달과정이었다. 16세기 중엽부터 기술과 산업의 발달은 가내 수공업에서 대규모 노동자가 분업으로 이루어지는 매뉴팩처

---

9) 이택광, 앞의 책, p69

10)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역, 『자본 I』, 도서출판 길, 2008, p506

11)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역, 앞의 책, p971



로 이행되면서 도시는 더 많은 빈민들이 넘쳐나게 되었다. 도시에 유입된 농민, 매뉴팩처로 실업자가 된 노동자는 거리를 부랑하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였다. 국가에서는 이들의 행위가 치안을 어지럽게 한다는 이유로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 당시 도시빈민의 모습을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산업이나 기술이 보급되고 번영됨에 따라 남의 멸시를 받으며 사치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세를 짊어지게 되고, 더구나 노동과 기아 사이에서 일생을 보내게끔 되어 있는 농민은 논밭을 버리고, 본디 그가 그곳에 가지고 가야 할 빵을 구하러 도회지로 간다. 도회지가 백성의 우둔한 눈을 경탄케 하면 할수록 논밭은 버림을 받고, 토지는 황폐해지며 한길에는 불행한 시민들이 우글대는 모습을 보고 한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거지나 도둑으로 변하여 언젠가는 수레로 찢어 죽이는 극형에 처하게 되기 때문이다.<sup>12)</sup>

자본주의 사회가 발달하고 근대적인 프롤레타리아가 형성되던 시기에 마녀사냥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여성에 대한 잔혹한 박해는 지배계급의 탄압에 맞선 농민들의 저항을 무력화시켰다. 국가권력에 의한 토지사유화 및 세금인상 등으로 인해 농민공동체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마녀사냥의 의도는 남성들에게 여성들의 힘에 대해 공포를 느껴야 한다고 주장하여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 저항세력을 붕괴하기 위해서는 피지배계급의 단결을 분리해야 했으며, 그 대안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게 된 것이다. 여성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게 된 동기는 여성들이 민간치료사로서 활동하게 되면 농민공동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민간 치유자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되면서 여성들은 수 세대에 걸쳐 전수하고 축적해 왔던 약초와 치유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의 유산을 박탈당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인클로저가 나타나게 되었

12) 장 자크 루소, 최석기 역, 『인간불평등기원론 · 사회계약론』, 동서출판사, 2012, p76

다. 다름 아닌 전문 의학이 등장한 것인데, 그 결과 낮은 계급 앞에서는 치료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서도 값비싸고 낯설며 도전할 수 없는 과학지식의 벽이 우뚝 솟아올랐다.<sup>13)</sup>”

농민의 토지몰수에 따른 인클로저가 민간에서 전해 내려온 의학기술까지 인클로저로 이어졌다. 민간요법을 실행하는 여성들은 국가에 의해 처형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나이가 많은 여성노인들이었다. 토지몰수 중에서 공유지가 유실되면서 여성노인들이 매우 열악한 삶을 살았으며, 이들은 생존을 위해 주변 친구나 이웃에 의존하거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빈민기관에 의지했다. 하지만 빈민기관도 운영이 곤란해지자 여성노인들은 더 힘든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지배계급 입장에서 노인여성은 국가제정을 낭비하게 만드는 대상이었다. 노인여성의 의학기술은 국민에 대한 지배통제를 방해하고 있었기에 많은 노인여성들은 마녀로 내몰리게 되었다. 노인여성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사술을 부렸다는 이유로 고발당하여 부당한 박해를 받았다.

자본주의의 도래는 농민의 토지를 수탈하고, 농민들은 사회적 부조리에 불만을 느끼며 지배계급에 대해 저항하였다. 하지만 국가는 자신들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은 마녀를 만들어냈으며, 그 주요대상은 연약한 여성이었다. “지배계급은 이미 토지를 빼앗겨 빈곤해지고 범죄자로 몰린 남성들이 자신의 불행을 거세의 힘을 가진 마녀의 탓으로 돌리게 만들었고, 여성들이 당국에 저항해 힘을 자신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사용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대부분 교회의 여성 혐오적인 선동 때문에) 남성들이 여성에 대해 깊이 품게 된 모든 공포는 이런 맥락에서 동원되었다.<sup>14)</sup>”

하지만 마녀사냥은 17세기까지 끝난 사건만은 아니었다. 마녀사냥 형태는 마녀라는 대상을 대신하여 다른 대체물들로 전환되었다. 마녀는 실존하지 않지만, 존재해야 했으며,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 마녀를 존재하게 한 것은 마녀프레임이었다. 프레임을

13)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캘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1, p299

14)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앞의 책, p281

작동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는 숭고한 대상을 필요로 한다. 이 대상은 욕망이 실현될 수 없다는 한계를 은폐하기 위한 절대적 대상이다. 절대적이라는 것은 경험과 증명을 초월해 있다는 뜻이다.<sup>15)</sup>” 이런 모순적인 이데올로기에 의한 마녀 프레임은 17세기 이후 식민지에서 원주민에 대한 억압, 프랑스 파리로코뮌에서 파리 여성에 대한 탄압, 스탈린의 반(反)스탈린주의자 탄압 및 공포정치까지 이어진다. 한국에서도 마녀프레임은 군사 독재정권에서 용공조작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용공조작사건은 군사 독재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지배이데올로기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민주주의 관련 단체나 인물을 반국가세력으로 조작하였다. 반국가세력으로 내몰린 국민은 불법으로 납치, 감금, 고문을 당했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했다. 최근 국내에서 흥행한 영화 <변호인, 2013>은 부림사건<sup>16)</sup>을 모티브인 점을 고려하면 마녀사냥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던 일이었다.

새로운 문물이 외부로부터 유입되고, 기존 사회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면 지배계급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마녀 프레임으로 통해 미녀사냥을 해왔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급격한 발전은 인류문명을 크게 발달시켰으나 자원고갈, 환경오염, 기후변화, 자연재해, 빈부격차, 노동문제, 인간소외 등과 같은 문제를 만들었다. 문명발달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오히려 은폐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사회적 약자들은 지배계급에 의해 박해를 받았으며, 대중의 시선에서는 왜곡당해 사회적 악으로 간주되었다. 문명의 발달과정에서 발생된 모순을 감추기 위해 계속 어느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만들면서 더 많은 마녀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마녀사냥은 과거에 사라진 유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현재형이다.

---

15) 이택광, 앞의 책, p111~112

16) 부산의 학림(學林)사건'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으로 1981년 3월 출범한 제5공화국의 군사독재 정권이 집권초기 통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주화세력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부산에서 독서모임에 참여하던 대학생, 교사, 직장인 등을 불법으로 구금 및 고문을 하던 용공조작사건이다.

### Ⅲ.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의 시놉시스로 주인공 카나메 마도카는 “미타키하라시(見滝原市)<sup>17)</sup>”에 위치한 미타키하라 중학교에 재학 중인 평범한 소녀다. 어느 날 마도카는 꿈에서 어떤 소녀가 자신의 이름을 애절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고 깨어났으며, 그 소녀는 마도카가 다니는 학교에 전학 온 아케미 호무라이었다. 호무라는 나타난 이후 마도카는 큐베를 만나게 되고, 큐베는 마도카에게 자신과 계약하여 마녀소녀가 될 것을 부탁한다. 하지만 호무라는 큐베가 마도카를 마법소녀로 만드는 것을 계속 방해한다. 마도카는 호무라 이외의 마법소녀로 토모에 마미를 만나고, 마미가 마법소녀로 활동할 때 옆에서 보조로 활동하지만, 마미는 마녀사냥 중 마녀에게 살해당한다.

마미가 죽은 후 새로운 마법소녀로 사쿠라 쿄코가 등장하고, 마도카의 친구 미키 사야카는 자신의 친구인 카미조 쿄스케의 병을 고치기 위해 큐베와 계약하여 마법소녀가 된다. 사야카는 마법소녀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몸이 보통 인간과 다르다는 점에 절망하여 결국 마녀로 변하고, 쿄코는 사야카와 함께 자폭한다. “발푸르기스의 밤(Walpurgis Night)”에 강력한 마녀가 미타키하라시로 찾아와 도시를 파괴하고, 호무라는 마녀와 계속 싸우지만,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마도카는 큐베와 계약하여 마법소녀로 변신한다. 마도카는 세상에 모든 마법소녀가 마녀로 되지 않기 위해 그녀들의 모든 절망을 받아들이고, 마도카 자신도 마녀가 되지 않기 위해 마법을 사용한다. 마도카의 마법에 의해 마법소녀와 마녀는 존재하지 않은 존재로 되고, 마도카는 인간의 영역을 초월한 신적인 존재가 된다. 현실세계에서 마도카라는 인간은 사라지고 관념적인 신이 된 후 호무라를 제외한 모든 마법소녀는 사라진다. 마녀가 사라진 세상에 마녀를 대신하는 마수(魔手)가 새로 등장하고, 호무라는 혼자 마수를 퇴치하면서 <마법소녀 마

---

17) 미타키하라시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에서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도카☆마기카>는 종료된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는 마녀는 본래 마법소녀이었다. 마법소녀가 마녀로 변하는 이유는 세상과 마법소녀 자신에게 희망과 행복을 위해 활동하나,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과 불행이다. 마녀로 변한 마법소녀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에게 절망과 불행을 퍼뜨리기 위해 저주와 재앙을 부른다. 마녀의 저주는 인간의 정신을 조종하여 자살을 유도하고, 발푸르기스의 밤과 같은 강력한 자연재난을 일으킨다.

현실에서 마녀는 존재하지 않으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의 저주로 인해 자살하려는 인간은 불안한 심리와 삶에 대한 무기력증에 따른 정신병적인 증상이고, 마녀의 재앙인 발푸르기스의 밤은 “슈퍼 셀(Super cell)” 이란 기상이변현상이다. 슈퍼 셀은 뇌우(thunderstorm)의 한 형태이다. 메조사이클론(Meso cyclones)인 이 현상이 더 강력해지면 토네이도(Tornado)라고 불리는 강력한 소용돌이로 변한다. 토네이도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나, 최근 지나친 도시개발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토네이도의 발생빈도와 위력이 강해지고 있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공간적배경인 미타키하라시를 살펴보면 마천루(摩天樓)처럼 높게 솟아오른 빌딩과 공장들이 가득하다. 미타키하라시와 같은 대도시는 대기의 순환이 건축물에 의해 막혀 정체되거나, 콘크리트와 아스팔트에서 발생하는 복사열은 열오염으로 되어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하지만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슈퍼 셀은 대기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발푸르기스의 밤에 찾아온 마녀의 재앙인 것으로 나온다. 발푸르기스의 밤에 대해 살펴보면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의 『황금가지』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중부유럽에서는 다른 어떤 때보다 오월절 전야인 ‘발푸르기스의 밤’을 마녀들이 해로운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때로 여겼다. 따라서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마녀를 막기 위해 경계를 서고, 단지 방어하는 차원을 넘어 과감하게 적의 진지로 돌진하여 그 섬뜩한 무리

들을 공격하고 강제로 몰아내고자 하는 것을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 무서운 교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는 무기는 성수(聖水), 향이나 다른 연소물의 연기, 온갖 종류의 커다란 소음, 특히 금속 기구를 부딪치는 소리 따위였다.<sup>18)</sup>

발푸르기스의 밤은 마녀들의 해로운 능력이 최고로 발휘되는 날이란 점에서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도 매우 위험한 재앙이 시작되는 날로 나온다. 발푸르기스의 밤에 찾아온 마녀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 마녀보다 더 강한 마법소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강력한 마법소녀가 탄생하면, 그 마법소녀는 더 강한 불행과 절망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신이 퇴치한 마녀보다 더 강한 마녀가 되어야 했다. 강력한 마녀가 많이 발생할수록 더 많은 마법소녀가 필요했으며, 이들은 다시 또 마녀로 되면서 더 강한 저주와 재앙을 퍼뜨리게 되었다.



그림 2. 미타키하라시의 고층빌딩지역(좌)과 공장지역(우)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법소녀들은 부조리한 구조에 의해 탄생하고 희생되어야 했다. 마법소녀들의 비밀을 알게 된 마도카가 그 부조리에 실망할 때, 큐베는 마도카에게 마법소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준다. 큐베는 본래 인큐베이터라는 존재로 인류문명이 시작하면서 인간과 같이 존재했다. 인류문명이 발달하면서 인류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효율적으로 연기 위해 소수의 희생자를 필요했다는 점을 설명한다. 큐베와 계약한 마법소녀들은 언젠가 마녀가 되어 희생되겠지만, 그 희생은 인류 전체의

18)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p659

변영과 이익으로 이어지고, 인류를 위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한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인간세상의 모든 불화와 재앙은 마녀에 의해서고, 마녀가 되는 이유는 마법소녀가 세상에 대해 불행과 절망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인류문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대상은 대부분 어린 소녀이었다. 어린소녀가 희생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가장 힘이 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마녀사냥 초기의 희생자들은 노인여성이었으나, 16~17세기 마녀광란 시기에는 나이가 젊거나 어린 여성이 마녀사냥을 당하게 된다. 당시 흉작, 재해, 사고 등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군중들은 크게 불안했다. 이유 모를 재앙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던 군중들은 모든 재앙의 발단을 마녀의 탓으로 돌렸고, 마녀로 지목되는 희생자들은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소녀들이었다.

군중심리에 의한 마녀사냥은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아무 죄도 없는 약자를 죄인으로 내몰아 희생시킨 것이다. 유럽의 마녀사냥만이 아니라 인류의 문명은 권력자의 체제유지 및 이익을 위해 항상 누군가를 희생시켰다. <황금가지>를 참조하면, 고대사회의 인간들은 자신들에게 재앙이 닥치는 이유가 신의 노여움이나 마귀의 저주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신의 노여움과 마귀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인신공양제도가 성립되고, 처음에 그 희생자는 지배계급에서 시작하여 피지배계급으로 이전되면서 어린 소녀들이 가장 많이 희생되었다.

어린 소녀들이 많이 희생된 이유는 어른들은 살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영혼이 타락했지만, 어린 소녀들은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순수한 영혼이므로, 그녀들에게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면 재앙은 사라질 것이라 믿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인간들의 이기심이 인간 스스로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것이었으나, 그 문제의 원인을 회피하고 누군가를 희생시킴으로써 그들의 이권을 지킬 수 있었다. 마녀사냥이 광적으로 이루어진 16세기와 17세기

는 지배계급인 교회와 권력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자본주의 경제체계를 가속된 점을 고려하면 다른 누군가는 희생되어야 했다. “문화발전의 과정을 이해하는 열쇠로서 인간의 생식압력(인구증가압력) → 생산증강과정 → 생태환경의 파괴·고갈 → 새로운 생산양식의 출현<sup>19)</sup>” 이란 점을 고려하면 농경사회에서 상공업이 중심으로 되는 자본주의 사회구조로 전환되면서 물질적 생산력이 증강되었다.

“생산의 증가는 언제나 환경의 손상과 고갈로 물고 왔으며, 그것은 새로운 생산시스템, 제각기 특징적인 제도적 폭력, 고된 노역, 착취 또는 가혹행위 등의 특색을 가진 생산시스템을 가져왔다.<sup>20)</sup>” 환경의 손상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환경오염은 인간에게 많은 질병을 일으켰다. 자본주의의 가속화는 지나친 노동시간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심신이 소모되었으며, 치명적인 경우 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마녀사냥이 일어나던 시기 역시 새로운 생산시스템이 도래할 경우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 사회체계와 새로운 체계가 도래하면 기존 사회의 모순이 드러나고, 그 문제는 정치사회적인 체계유지에 있었다. 이권을 가진 지배계급들에게는 마녀사냥이란 것은 체계유지를 위한 정치적 수단인 점이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자본주의 경제구조가 도래하기 전에도 이미 마법소녀와 마녀가 존재했지만, 자본주의 경제구조 확립된 시기에 더 많은 마녀가 필요했다. 큐베는 발푸르기스의 밤의 마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그 마녀보다 더 강력한 마법소녀가 필요하고, 그 마법소녀가 될 수 있는 소녀는 오직 마도카라고 말한다. 대신 마도카가 마법소녀로 되어 발푸르기스의 밤의 마녀를 퇴치할 경우 마도카는 최강의 마녀가 되어 수 일 내로 지구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한다.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재앙이라면, 해일, 폭우, 안개, 폭설, 한파 등과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로 볼 수 있다. 자연재해는 본래 대기의 순환, 해류

19) 마빈 헤리스, 정도영 역, 『식인과 제왕』, (주)도서출판 한길사, 1996, p5

20) 마빈 헤리스, 정도영 역, 앞의 책, p12



의 운동, 강우현상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 및 기상이변현상,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문명사회는 여전히 환경파괴, 자원고갈, 빈부격차, 인간소외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다. 문제의 원인을 해결보단 그 문제에 따른 피해를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었다. 마녀사냥이 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에 “마녀에 대한 공포는 궁극적으로 평안한 삶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심리작용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한다. 자본주의 축적 방식 확산은 농민계급이 가진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위협했고, 마녀는 이에 대한 대속(代贖)의 희생양으로 호출되었던 것이다.”<sup>21)</sup>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대속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던 소녀들은 큐베와 계약으로 통해 마법소녀가 된다. 큐베는 마법소녀의 희생이 인류의 이익이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큐베는 마법소녀의 희생에 대해 그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는다. 작품 내에서 큐베는 인류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같이 존재한 의계생물이라고 하지만, 큐베는 인류의 전체의지라고 볼 수 있다. “일반의지는 공통의 이익을 생각하는 반면, 전체의지는 사사로운 이익만 생각하는 특수의지의 총화<sup>22)</sup>” 이기 때문이다. 마녀사냥이 대속의 희생양을 찾기 위한 제도인 것처럼 그 근원에는 자신들만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마도카는 마법소녀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마녀소녀로 변신하여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마법소녀들을 없었던 존재로 만든다. 마도카는 마녀로 되었던 마법소녀들의 모든 절망과 불행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고, 자신마저 절망과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에게 마법을 건다. 마도카의 마력은 우주의 법칙을 뒤집었기 때문에 마도카는 인간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신이 된다. 마도카의 선택으로 호무라를 제외한 모든 마녀와 마법소녀들은 사라진다. 하지만 마녀는 사라져도

---

21) 이택광, 앞의 책, p146

22) 장 자크 루소, 최석기 역, 앞의 책, p183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마수가 새로 등장하고, 호무라는 혼자서 마수를 계속 퇴치한다. 이 모습에서 인간들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이 만들어낸 마녀(와 같은 존재)의 저주와 재앙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마법소녀 장르는 일본애니메이션에서 대표적인 장르이며, 대표적인 작품으로 <요술공주 세리>, <요술공주 밍키>, <미소녀전사 세일러 문> 등이 있다. 마법소녀 장르의 특징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녀가 강력한 마력으로 통해 세상의 평화를 위해 싸우거나 또는 모험을 떠나거나 혹은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 활약한다. 기존 세계의 질서를 지키고, 이상적인 가치관을 위해 악의 세력과 싸우며, 정의의 용사로 활동한다. 하지만 2011년 TV에서 방영한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는 기존 마법소녀 장르와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 마법소녀 장르에서 악마, 요괴, 유령, 마녀 등은 마법소녀가 대적하는 악의 세력으로 등장하나,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는 처음부터 악의 세력이 아니라, 과거에 마법소녀였던 존재였다. 마법소녀가 마녀로 변하는 이유는 마법소녀들이 활동하면 희망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불행만 찾아오기 때문이다. 마법소녀가 마녀사냥을 하는 것은 그 마녀가 가진 절망과 불행을 모두 받아들여야 하는 모순이 계속 반복된다. 강력한 마녀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더 강하고 더 많은 마법소녀들이 필요했으며, 새로운 마법소녀들이 마녀로 보충되면 이들은 마녀로 변하여 더 많은 저주와 재앙을 퍼트린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의 저주에 걸린 인간들은 정신이 지배당해 자살하게 되어 목숨을 잃고, 마녀의 재앙은 발푸르기스의 밤과 같은 대재난을 일으킨다. 그러나 마녀는 처음부터 존재했던 존재가 아니라 존재해야만 했던 존재였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큐베와 계약한 마법소녀들은 마녀가 되

어 마녀사냥을 당해야 했다. 마법소녀와 마녀의 비밀이 밝혀지는 장면에서 큐베는 마도카에게 마법소녀들이 희생당하는 것은 그녀들 개인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 희생은 인류의 발전과 도움이 된다고 한다. 큐베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인류와 같은 역사를 보내왔고, 인류문명의 발전에서 수많은 마법소녀들을 만들어 왔다고 말한다. 큐베가 밝힌 것처럼 인류문명이 발전하면서 생긴 문제의 원인을 모두 마녀가 저지른 것으로 되어야만 했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가 죄를 저지르고, 그 죄에 대해 처벌받아야 했던 것처럼, 실제 인류역사에 기록된 마녀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녀로 몰려 억울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

마녀사냥이 일어난 원인으로 “이교도 잔당들을 근절시키고자 한 기독교의 의지, 당대 반여성주의의 움직임, 이교도 반대의 필요성,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바로크 시대의 종교적 열의, 사회질서에 보다 큰 관심을 보인 근대국가의 탄생, 자본주의의 정착, 유럽 내전, 전반적 궁핍, 농촌문화의 변질, 사회지도층에 대한 대중의 부정(不定) 등이 있었다.”<sup>23)</sup> 마녀사냥이 일어나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그 기반에는 사회구조적인 모순과 불안한 인간의 군중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녀사냥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16세기에 가뭄이나 한파 등으로 인해 흉작이 되어 수많은 인간이 굶주림에 죽어갔으며, 자연재해에 대한 과학지식의 부재는 인간을 광기로 몰아넣었다. “굶주림에 죽어가면서도 악마적 마법에 대해 오랫동안 반신반의하던 불쌍한 농부들도 이제 그 실재에 대해 믿기 시작했다. 전쟁의 뜨거운 화염과 한파 사이에서 꼼짝할 수 없게 된 가없는 농부들은 이 연속된 재난의 책임을 이제 누군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sup>24)</sup>

마녀사냥의 희생자는 대부분 힘이 없었던 여성들이었고, 그녀들이 처형대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도 그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었다. 그녀들의 죽음은 공포에 질린 군중들의

23) 기 베슈텔, 전해정 역, 『신의 네 여자』, 울력, 2004, p204

24) 기 베슈텔, 전해정 역, 앞의 책, p204

불안 심리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고, 지배계급의 무능함과 부조리를 은폐시킬 수 있었다. 농민의 토지 및 민간요법에 대한 인클로저 현상은 사회적 모순을 더 심각하게 만들었고, 농민들은 더 불안하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발푸르기스의 밤은 농작물을 망치거나 가축을 병들게 하는 나쁜 마녀가 찾아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마녀에 대한 원망이 깊어질수록 피지배계급은 마녀사냥에 더 빠져들었다. 이에 반해 지배계급은 마녀사냥으로 통해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마녀사냥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일어나는 일이며, 마녀사냥의 희생자는 지금도 계속 필요한 존재이다. “마녀는 자기 정체성 또는 동일성을 획득하기 위해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였다. 중요한 것은 마녀라기보다 마녀의 범주다. 마녀라는 범주는 비존재의 존재성이라는 공백의 이름으로 근대세계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마녀며 동시에 마녀 심판자다. 마녀로 지목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마녀를 지목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 것이다.<sup>25)</sup>”

국내에서도 군사독재정부가 자신들의 권력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독재를 반대하는 국민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불법으로 납치했다. 억울하게 구금당한 사람은 불법으로 자행된 고문과 각종 가혹행위에 고통 받았으며,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겼다. 그러나 억울하게 희생된 국민은 언론매체에서 반국가단체에 활동하거나 국가전복을 기도할 만큼 매우 위험한 인물로 보도되었다. 조작된 보도를 본 대다수 국민은 그들의 희생을 부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긴 점에서 마녀사냥은 최근까지 우리 역사에서도 존재하였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이란 사실을 알 수 있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도카의 희생으로 세상에 모든 마법소녀와 마녀가 없어진다. 하지만 마녀가 세상에서 사라져도 마녀를 대신하여 마수가 등장하여 인간 세상에 저주와 재앙을

---

25) 이택광, 앞의 책, p161

퍼트린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존재는 등장하는 방법과 걸모습만 다를 뿐이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문제의 원인을 고찰해보면 과거에 해명하지 못했던 한파, 가뭄,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과학적으로 규명하여도,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는 해결되지 못했다. 중세유럽 시작된 마녀사냥의 원인이 법과 제도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루소의 『인간불평등기원론』에 제시된 다음 문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와 법률의 기원은 이런 것이었다. 아마 이런 것이었으리라. 이 사회와 법률이 약한 자에게 새로운 명예를, 부자에게는 새로운 힘을 주어 자연의 자유를 영원히 파괴해 버렸다. 또 사유와 불평등의 법률을 영원히 고정시키고, 교묘한 찬탈로써 취소할 수 없는 권리를 만들어 일부 야심가의 이익을 위해 이후 전 인류를 노동과 예술과 빈곤에 굴복시킨 것이다. 그리고 단 하나의 사회에 대한 성립이 어떻게 모든 사회의 성립을 필수적인 것으로 했는가, 또 단결한 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스스로도 단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쉽게 수궁할 수 있다. 사회는 급속히 증가하고 넓어져, 마침내는 지구의 전 표면을 덮어 버렸다.<sup>26)</sup>

문명사회에서 인간들은 문명의 혜택을 누리기보단 오히려 사회적 모순과 불평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모순을 찾아내어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는 그 문제를 은폐시킬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적 약자에게 전사시켰다. 문명의 발전에는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관계되어 있으나, 역사가 흘러가고,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여도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세계역사에서 프랑스대혁명 이전의 지배계급은 왕과 귀족, 교회의 성직자들이라면, 현대사회의 지배계급은 경제적 이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 봉건적 구체제가 해체된 현대사회에서 국가와 사회는 여전히 불평등한 조건에 의해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

26) 장 자크 루소, 최석기 역, 앞의 책, p107

구분되어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적 부를 지닌 자들은 계속 그 부를 확대되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빈곤한 계층은 가혹한 노동과 가난으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다. 가난은 부모의 세대에서 머물지 않고, 그 뒤를 잇는 후손들까지 계속 이어지는 모순이 끊임없이 유지된다.

모순이 심각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그 모순으로 인한 절망과 불행으로 고통을 받는다. 인류문명은 인간을 절망과 불행보다 희망과 행복을 위해 발전한 것처럼 보이나,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삶은 희망과 행복이 아닌 절망과 불행만이 더 가중되었다.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란 인류문명 발달에서 모순과 부조리에 의해 희생당한 마법소녀들이고, 그녀들은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을 내리는 보복의 존재다. 마녀가 되어야 했던 마법소녀들은 모두 처음에 세상의 희망과 행복을 위해 활동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절망과 불행이었다. 마녀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자의 이익과 군중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존재하여야 했다.

마녀의 탄생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며, 마녀사냥은 부조리한 사회를 은폐 및 왜곡시키는 또 다른 이름의 신화화다. 마녀사냥으로 희생당하는 사람은 어느 특정 소수인물이 아니라 불특정 대다수 어느 누군가가 될 수 있다. 누구나 마녀가 될 수 있고, 마녀심판자도 될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에 대해 제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에서 마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마녀사냥으로 가려진 은폐된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를 고찰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강신준, 『오늘 「자본」을 읽다』, 도서출판 길, 2014  
기 베슈텔, 전해정 역, 『신의 네 여자』, 울력, 2004

- 김광철, 『인간과 환경』, 동화기술, 2005
- 마빈 해리스, 정도영 역, 『식인과 제왕』, (주)도서출판 한길사, 1996
- 마빈 해리스, 박종렬 역, 『문화의 수수께끼』, (주)도서출판 한길사, 2008
- 마빈 해리스, 유명기 역, 『문화유물론』, 민음사, 1996
- 마빈 해리스, 김찬호 역, 『작은 인간』, 민음사, 1995
- 신현덕, 『환경과 자원』, 동화기술교역, 2000
- 실비아 페데리치, 황성원·김민철 역, 『캘리번과 마녀』, 갈무리, 2011
- 야마구치 야스오, 김기민 역, 『일본 애니메이션 역사』, 미술문화, 2005
- 이택광, 『마녀 프레임』, 자음과 모음, 2013
- 장 자크 루소, 최석기 역, 『인간불평등기원론·사회계약론』, 동서출판사, 2012
- 장 자크 루소, 김중현 역, 『학문과 예술에 대하여 외』, 한길사, 2007
-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 이용대 역,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2003
- 조광명, 『대기오염』, 청문각, 1999
- 최병두, 『환경갈등과 불평등』, 한울, 1999
- 카를 마르크스, 강신준 역, 『자본 I』, 도서출판 길, 2008
- 헬렌 매카사·조너선 클레멘츠, 한창완·이성훈 역, 『저패니메이션 하드코어』, 현실문화연구, 2004
- 한창완, 『저패니메이션과 디즈니메이션의 영상전략』, 도서출판 한울, 2006
- 헤르베르트 마르크주제, 김인환 역, 『에로스와 문명』, 나남출판사, 2004
- 박인하, 「일본 애니메이션 장르 연구: 마녀소녀 물을 중심으로」, 『만화애니메이션연구』, VOL 3, No. 4(1999)
- 아키코 스가와·시마다, 「진화하는 일본 마법소녀물 속 변화하는 걸 파워(Girl Power)!: <요술공주 세리>에서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까지」, 『PISAF 아시아 애니메이션 포럼』, VOL 2, No. 4(2014)
- 김유나, 정은혜, 「여성주의 문화이론에 따른 애니메이션의 여성 영웅 캐릭터 비교 분석 - 한·미·일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 『만화애니메이션연구』, 제36호, 2014
- <마법소녀 마도카☆마기카>(Puella Magi Madoka Magica, 2011)
- <변호인>(The Attorney, 2013)

## ABSTRACT

### The Research on Witch in <Puella Magi Madoka Magica>

Yun, Young-Seok

"Magical girl" is one of many popular genres that are watched in Japanese animation. The characteristics of "Magical girl" genre shows that most main heroine as the girl in young age, and this young girl play her role as a character with supernatural power. The majority in population of Japanese animation consumers were men. However, women began to become this population of Japanese animation consumers with the beginning of "Magical girl" genre, which also became a cause for the birth of "Shojo anime".

The first "Shojo anime", as well as the first animation of "Magical girl" genre in Japan was <Mahou Tsukai Sally>, and this piece made a great hit when it was broadcasted. Since the great hit of <Mahou Tsukai Sally>, new pieces of animation in "Magical girl" genre has broadcasted through television continually, making other great hits also with <Magical Princess Minky Momo> in 1982 and <Sailor Moon> in 1992.

Discussing of which, <Sailor Moon> made not only a great hit in Japan, but worldwide as well, that its new season of TV series, <Sailor Moon Crystal>, is broadcasted in 2014. "Magical girl" genre was loved by viewers of Japanese animation for a long time, and it is still broadcasted regularly today.

In observation of pieces in "Magical girl" genre, magical girls who appear as a main character either fight for the world they live in, or take on an adventure, or take an action according to their idealistic purpose. However, the magical girls who appear in <Puella Magi Madoka Magica> take an action not for the peace of their world, but rather for their own benefits and purposes.

In <Puella Magi Madoka Magica>, magical girls fight against the witches and their familiar spirits, which end up in a horrible conclusion. The witches who magical girls fought against were not already the witches in the beginning, but in fact were the other magical girls who took their action in the past. It Magical girls in present time were having witch hunt against the witches, who were once another magical girls in the past. Unlike traditional "Magical girl" genre, where witches and magical girls were used to be an



enemy to each other, <Puella Magi Madoka Magica> contains paradox that magical girls end up turning into witches.

Witches did not exist in the beginning, but rather someone had to be one, to be hunted down in witch hunt. The cause of witch hunt did not exist in the beginning, but rather the ones had to be tagged as witches to be hunted down. Therefore, this paper is written to discuss an existence of witch in research of its historic origin of witch hunt, and on the witches appear in <Puella Magi Madoka Magica>.

Key Word : Puella Magi Madoka Magica, Witch Hunt, Civilization

윤영석

서브컬처 웹진 애니뉴스(subculture.co.kr) 신사,  
네이버카페 애니큐어(<http://cafe.naver.com/foraniculture>) 스태프  
(606-808)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363-25 26/2  
tomanderson@naver.com

논문투고일 : 2015.04.16.

심사종료일 : 2015.05.20.

게재확정일 : 2015.05.30.